

---

# II

# 둔병도

---





여수시  
변천사

## Ⅱ. 둔병도

### 1. 사회·지리적 배경과 환경

#### 가. 사회 지리적 배경

##### 1) 주요 선착장간 거리

둔병항은 마을회관 서쪽 200m 지점에 있으며, 여객선 선착장은 작은섬 남동쪽에 위치하는데 마을회관에서 직선거리로 370m 떨어져 있다. 선착장에서 백야도 백야항까지는 직선거리로 9.9km 정도이며, 화양면 별가선착장까지는 3.9km이다.



둔병도 대합실 / 부잔교 / 둔병항



둔병마을 (2020)

## 2) 인구현황

2019년 12월 31일 현재,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25세대 39명이 살고 있으며, 이중 남자가 18명, 여자 21명이나 실제 거주하는 사람들은 적은 편이다.

인구 현황 (명)

세대수	인구수	남	여
25	39	18	21



둔병마을 (2008)

### 3) 토지

둔병도는 면적은 0.809km<sup>2</sup>이고, 해안선의 길이는 6.277km, 전답이 0.081km<sup>2</sup>, 임야 0.709km<sup>2</sup>, 대지 0.009km<sup>2</sup>, 기타 0.01km<sup>2</sup>이다.

토지 현황 (km<sup>2</sup>)

면적	전답	임야	대지	기타	해안선
0.809	0.081	0.709	0.009	0.01	6.277km



둔병마을 전경

### 4) 공공기관

둔병도는 작은 섬이라서 공공기관은 없으며, 과거 행정연락초소가 마을회관 앞에 있었지만, 현재는 민간에 팔려 비어있는 상태다.



둔병마을회관



행정연락초소



둔병분교 정문



둔병분교터



둔병분교터 (2008)

## 5) 교육기관

1960년 4월 7일 낭도국민학교 둔병분교장으로 개교하였으며, 1996년 2월 28일 낭도초등학교 둔병분교로 폐교됨에 따라 현재 교육기관은 없다.

## 6) 사회조직

### (1) 사회조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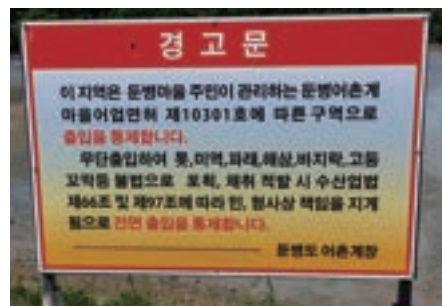
둔병도의 사회조직으로는 개발위원회, 조발 노인회, 조발부녀회, 조발어촌계가 있다. 인구가 감소하고, 주민들 대부분이 고연령이어서 단체 활동이 많이 축소되었다.

### (2) 둔병 어촌계

정식 명칭은 둔병어촌계이다. 1962년에 최초로 설립된 것으로 보인다. 이전에도 정식어촌계는 아니더라도 마을 공동체의 모임은 일제강점기 때부터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정식으로 어촌계가 설립되고, 1970년대에 최대 35명까지 계원이 증가하였으나, 차츰 세력이 약해지면서 현재는 약 22명 정도가 어촌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둔병경로당



둔병어촌계 별가양식장 안내판

어촌계에서 공동으로 생산하는 생산물은 공동어장에서 생산하는 툇이 주를 이루며, 바지락, 꼬막, 굴 등이 생산되었다. 어촌계원 각각의 어업은 통발과 주낙을 이용한 문어 낚지를 어획하고, 낚시어업으로 감성돔, 도다리, 볼락, 노래미, 쏨뱅이, 농어, 장어, 송어 등을 어획하였다. 둔병어촌계에 부속된 섬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나. 지형과 환경

### 1) 지형

둔병도는 여자만 만입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여수에서 남서쪽으로 28km, 조발도에서 남서쪽으로 0.8km 지점에 있다.

둔병도는 경사가 급하여 경작지 발달이 미비하다. 북-남동해안은 해안선이 복잡한 암석 해안을 이루는 반면에 만입하는 남서해안은 넓은 간석지가 발달한다. 큰섬과 작은섬 2개의 섬으로 나누어졌으나 다리를 놓아 연결되었다. 해안을 따라 괴상 노두가 발달하였으며, 풍화혈(tafoni) 분포 빈도가 높은 편이다. 1950년대 이전에 조발도, 둔병도, 낭도에 선창이 건설되었고 2002년도 이후 리도 202호가 개통되었다. 이들 선창 및 도로개설로 인한 지형변화는 미미한 것으로 판단된다.



타포니



마을앞 갯벌

### (1) 갯벌

둔병도의 북동쪽의 2개의 곳 사이에 형성된 만의 조간대에 펄 퇴적물이 쌓여 형성된 펄 갯벌이 있다. 만 입구에서 매립을 위해 방조제를 건설하였으나, 일부 구간이 훼손되어 있다. 조간대 상부역은 자연환경이 잘 보존되어있는 갯벌이다.

둔병도 남쪽의 무인도 사이에 형성된 펄갯벌로서 둔병도 남쪽의 조간대가 만의 형태를 띠고 있어 펄퇴적물(직경 1mm이하)이 쌓여 만들어진 갯벌이다.

### (2) 몽돌 해변(역빈)

둔병도의 몽돌해변은 북쪽 해안에 뻗은 3개의 곳(串)사이의 만(灣)에 소규모의 몽돌해변이 형성되어 있다.



몽돌해변



## 2) 지질

여자만에 분포하는 도서의 인근은 중생대 백악기의 안산암 및 안산암질 응회암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산암류는 고흥반도 북부와 여수반도, 나로도 등에 걸쳐 분포하고 있다. 응회암류는 경상계층 유천층군 중 화산암질암류 분출과 관련된 화산암 및 화산쇄설암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중생대 백악기 경상누층군의 유천층군에 속하며, 화성암류 및 퇴적암과 이를 관입한 화강암류가 분포한다. 둔병도는 안산암 및 안산암질응회암이 주로 분포하며, 암상은 치밀, 견고하고 암회색을 띠며, 일부 화산력을 포함한다. (국토해양부, 2011)

## 3) 토양

둔병도를 포함한 화정면 조발리 일원의 토양층은 안산암과 안산암질응회암의 풍화토에 기인한 잔적토가 85%, 붕적층과 층적붕적층이 13.8%를 차지하고 있다.

## 4) 기후

여자만은 우리나라 기후 구분상 남해안형에 속하는 곳으로 북적도 해류인 쿠로시오에서 갈라져 나온 쓰시마 난류와 황해 난류의

영향을 크게 받아 온화한 해양성 기후를 나타낸다. 기온의 연교차가 작고 온화하여 강수가 많이 내리는 것이 특징이다. 즉 연평균 기온은 13~15℃이고, 최난월(8월) 평균기온은 약 25.6℃를 나타내며 최한월(1월) 평균기온은 약 2.7℃ 정도로 가장 추운 1월에도 영상의 기온을 나타내는 전형적인 온대성습윤기후(Cfa)의 특성을 나타낸다.

연평균 강수량은 1,460mm로 우리나라 다우지역 중 하나이며, 특히 그 가운데 여름철 집중적인 강수형태로 6~8월 3개월간의 강수량이 연강수량의 50~60%를 차지한다. 장마전선과 태풍 빈도에 따라 연강수량의 편차가 큰 편이며, 1999년의 경우 2,600mm를 넘는 연강수량을 나타내기도 했다.



출처 : 국토해양부 (2011)

## 5) 주변해역조류

둔병도가 속한 여자만의 평균 해수면은 약 1.94m이고, 2015년도 연평균 고조위는 2.141m, 저조위는 -2.062m이다. 그리고 연평균 해수온도는 17.7℃, 연평균 염분농도는 32.9PSU, 연간 염분농도 변화는 32.0~33.9PSU이다.

최강창조류 0.93m/sec, 최강낙조류 0.82m/sec 평면해면 181m, 대조차 297m, 소조차 108m이다. 민물의 유입량이 적은 리아스식 해안이 발달하였으며, 평균수심 40m 내외, 최대조차 3.9~4.2m이다.(국토해양부, 2011)

## 6) 주변환경

둔병도는 화정면의 남서쪽에 있으며, 남쪽을 제외한 해변은 자연해안 경관을 유지하고 있다. 남쪽의 섬과는 교량으로 연결되어 있고, 둔병항에서 둔병마을회관을 지나 남쪽의 우측의 곳까지 석축을 쌓아 해안도로가 만들어져 있다.



작은섬과 연결된 다리 / 석축을 쌓아 도로 확장 공사 중

둔병도는 여자만 입구에 있는 작은 섬이다. 섬 주위에는 낭도·조발도·적금도로 둘러싸여 있으며, 남쪽의 작은섬과 교량으로 연결되어 있다. 섬의 지형은 남쪽에 낮은 산지가 있고, 북서쪽은 사면의 경사가 완만하다. 섬은 대부분 경사가 완만한 구릉지이다. 해안은 만과 곳이 연이어져 드나들이 복잡하다. 북서쪽 만입부에는 간석지가 넓게 펼쳐져 있으며, 남서쪽 해안은 해식애를 이룬다. 둔병도 남쪽의 해안길과 부속도서 사이의 조간대에 필갱벌이 형성되어 있다. 마을은 섬의 남서쪽에 주로 분포되어 있다.

## 7) 주변도서

여수시와 고흥군 사이에 위치하며 여자만 입구에 있는 작은 섬이다. 섬 주변에 낚시터가 형성되어 있으며 인근의 낭도·조발도·적금도로 둘러싸여 있다. 남쪽의 작은섬과 교량으로 연결되어 있다. 행정구역상 부속섬은 없다.

## 다. 식생과 생태

### 1) 생태자원

생태자연도상 동쪽 대부분 산지는 2등급이고 서쪽 산지와 경작지 및 거주지는 이용과 개발가능한 3등급으로 되어있다.

### 2) 식물 식생

#### (1) 자생식물

둔병도의 주요 식생 중에서 인근의 다른 섬과 큰 특징을 보이는 것은 굴피나무가 많다는 것이다. 갈잎넓은잎 수종인 상동나무와 사스레피나무, 느릅나무가 생태 우점한다. 봄에 열매를 먹을 수 있는 보리수나무도 군데군데 형성되어 군락을 이루고 있다. 특히 당집 주변은 소나무나 곰솔이 다른 나무들과 비교해서 비율이 10%가 되지 않는 것이 큰 특징이다.

다만 섬의 다른 지역은 인근의 섬들에 비해 소나무가 아직은 많이 남아 있다. 상록넓은 잎나무는 송악군락이 형성되어 있고 특이하게 사철나무 자생 개체가 보인다. 사철나무는 자생으로 보기는 어려운 식물인데 둔병도에서 자생이 보이는 것은 마을에서 심은 것은 어떤 경로로 분포되면서 자생 개체가 생긴 것으로 판단된다.

마을 바로 뒷산 당집 앞의 식생이 아주 풍부해 자연생태학습장으로 일부러 꾸미기라도 한 것 같은 특징을 보이기도 한다. 우리나라 야산에 청미래덩쿨이 많은 것에 비해 여기서는 청미래덩쿨을 찾아보는 것이 쉽지 않다.

#### (2) 군락지

마을안길에 큰 느릅나무가 한그루 있어 골목길 사이 사이에 느릅나무가 씨를 내려 골목골목에 느릅나무 1~2년생들 개체들이 많이 보인다. 느릅나무는 우리 선조들이 민간요법으로 이용하기 위해 귀하게 보호했던 식물이다. 또한, 목질이 단단해서 도끼자루나 팽이자루 등으로 쓰였고, 기계에서 쓰는 선반의 중요 부품도 느릅나무를 이용했다.



송악

주변의 조밭도나 적금마을 담벼락은 모두 송악이지만 여기는 담벼락에 담쟁이 넝쿨이 많다. 집집마다 감나무와 사철나무가 있고, 민간요법으로 쓰였던 것으로 보이는 구기자와 골담초가 있는 집들이 많다.

인근 섬들의 휴경지나 들판에 개망초가 많은데 비해 둔병도에는 망초가 많다. 당집 앞에는 당산나무로 보이는 소나무가 한그루 있다. 바로 앞에는 넓은 공간이 있는 것으로 보아 최근 큰 나무가 죽어 없어진 흔적으로 보인다. 오른쪽에는 사스레피나무 큰 개체가 있고 왼쪽과 뒤쪽에는 커다란 굴피나무가 있다. 원래 당산나무였던 소나무가 고사하고, 약간 작은 소나무가 당산나무 구실을 하다 보니 굴피나무가 당산나무 같은 위치에 서 있다. 잘 모르는 사람이 보면 당집 바로 뒤에 키가 큰 굴피나무가 당산나무인 것으로 착각할 수도 있다. 큰 굴피나무에서 떨어진 씨가 발아된 1~2년생(50cm 내외) 굴피나무가 군락을 이루고 있다.

당집 앞 넓은 터에는 엉겅퀴도 군락을 이루고 있다. 엉겅퀴는 민간에서 약으로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당집 주변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는 가끔 눈에 띄는 정도이다. 당집 앞이라 당산할머니의 노여움이 무서워서 일부러 채취하지 않았다고 한다.



참골무꽃



옥녀꽃대



상동나무



보리

### (3) 식물상

둔병도는 당집이 마을 가까이에 있어서 비교적 식생이 풍부하다. 마구잡이로 채취하던 개느삼, 엉겅퀴, 참골무꽃, 옥녀꽃대, 느릅나무, 짚레, 초피, 개산초 등의 개체가 다수 분포한다.

목본으로 팽나무, 개복숭아, 붉나무, 예덕나무, 시누대, 국수나무, 산벚나무가 있다. 아까시가 몇 개체 분포하는 것으로 보아 일제강점기 즈음 개발의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초본식물로는 사위질빵, 살갈퀴, 개모시, 갈퀴, 망초, 광대나물, 금창초, 썸바귀 등이 많은 개체수를 보인다.

당집 주변의 굴피나무와 소나무는 모두 송악이 타고 올라가서 고사하거나, 생명을 위협 받고 있다. 당산나무뿐만 아니라 당집 오른쪽 큰나무 역시 송악이 완전히 점령한 상태로 얼마 뒤에는 그 존재 여부를 확인하지 못할 수도 있다.

옥녀꽃대도 눈부신 하얀 자태를 자랑하고 있다. 참골무꽃이 군락을 이루어 보라색으로 예쁜 자태를 자랑하며 군락을 이루어 꽃밭으로 착각하게 한다. 꽃이 화려하고 예뻐서 관상용으로 마구잡이로 채취되는 참골무꽃이 많이 남아있다. 엉겅퀴처럼 당집 앞이기 때문에 부정탈 것을 우려해 아무도 손을 대지 못했기 때문이다. 개느삼 개체도 상당수가 분포하고 있다.

당집 올라가는 길목에 상동나무가 큰 군락을 이루고 있는데 상동나무 열매를 이 지역에서는 정금이라고 한다. 예전에는 소먹이러 갈 때 아이들에게 아주 훌륭한 간식거리였기 때문에 없어서 못 먹었다. 술을 담궈서 민간요법으로 쓰기도 했다. 요즘은 정금을 간식거리로 여기는 아이들도 없고, 자잘한 열매를 따서 따로 쓰는 사람도 없어서 지천으로 열려있어도 아무도 채취하지 않는다.

쭈, 산딸나무, 팽이밥, 뿌리뱅이, 땡땡이덩굴, 꽃다지, 고들빼기, 괴불주머니, 소루쟁이, 뱀딸기, 꿩의밥, 육모초, 산국, 으름덩굴, 억새, 청미래, 청가시, 달맞이, 밤나무, 보리수, 측백나무, 쥐똥나무, 머루덩굴, 방가지똥, 봉의꼬리, 고사리, 환삼덩굴, 명아주, 냉이, 황새냉이, 제비꽃(파란색)이 분포하고 있다.



개느삼



꼭두서니



꿩의밥



엉겅퀴



괴불주머니

### 3) 육상동물

둔병도는 낭도에 분포하는 생물과 유사하다.

#### 4) 해양생물

둔병도 주변에서 주로 어획되는 어류는 농어, 송어, 감성돔, 짱둥어, 쏨뱅이, 조피볼락(우럭), 쥐노래미 등이 출현하였다.



수면위에서 수영하는 송어떼



펄에 서식하는 게



고동류인 덩가리의 우점

둔병도 주변 조하대 조사결과 총 56종이 출현하였으며, 유형동물 1종, 척삭동물 1종, 환형동물 36종, 연체동물 6종, 절지동물 8종, 극피동물 4종으로 구성되어 있다.

유형동물에서는 끈벌레류, 척삭동물에서는 반색류가 출현하였으며, 또한 환형동물에서는 부채발갯지렁이류, 납작백금갯지렁이, 큰사슴갯지렁이, 중국부채발갯지렁이, 솜털바퀴 실타래갯지렁이, 황금비늘갯지렁이류, 구슬수염갯지렁이류, 치로리미갯지렁이, 눈비늘갯지렁이류, 버들갯지렁이, 잎빛갯지렁이, 송곳예뽀이비늘갯지렁이, 긴자락송곳갯지렁이, 울타리갯지렁이류, 양손갯지렁이, 버들갯지렁이류, 황금뿔사슴갯지렁이류, 남방백금갯지렁이, 은갯지렁이, 아시아고깔갯지렁이, 사천왕갯지렁이, 홍점갯지렁이, 얼굴갯지렁이류1, 얼굴갯지렁이류2, 꽃갯지렁이류, 수염구더기갯지렁이, 고랑비늘갯지렁이류, 투구갯지렁이, 민얼굴갯지렁이류, 큰모래고랑비늘갯지렁이, 오투기갯지렁이, 염주발갯지렁이류, 유령갯지렁이류, 조름털갯지렁이류, 실타래갯지렁이류, 실참갯지렁이류, 연체동물에서는 노랑볼록조개, 올리브복털조개, 종밧류, 돌조개류, 붉은줄집시조개, 살조개, 절지동물에서는 딱충새우류, 안정옆새우류, 단각류, 무딘이빨게, 여섯발게류, 털다리게불이, 애기털보부채게류, 장님진흙살이게, 극피동물에서는 넓은팔비늘거미불가사리, 광삼류, 검은띠불가사리, 뱀이거미불가사리류가 출현하였다.

해조류는 조간대에서 가시파래, 잎파래, 구멍갈파래, 꼬시래기, 지충이, 김, 불등가사리, 풀가사리, 미역, 팽생이모자반, 툫 등이 주로 관찰되었다. 툫은 둔병도의 주 생산 해조류로 생산량이 많았으며, 종묘용으로 생산하여 적금도나 고흥 팔영 또는 여수 등으로 운송하여 판매되었다고 한다.



파래류의 분포와 풀가사리

해초류는 총 3종이 출현하였으며, 일명 잘피라고 불리는 거머리말은 섬 남쪽 만과 북쪽 만에서 다수 발견되었으며, 애기거머리말과 포기거머리말이 일부 발견되었는데 이들은 둔 병을 기준으로 남쪽에 주로 분포하였다.



남쪽 선착장 앞 거머리말

북쪽 만 거머리말

애기거머리말

포기거머리말

## 5) 기타생태자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수산자원의 보호 및 육성을 위한 공유수 면이나 인접구간 행위제한을 위하여 지정되었다. 여수시는 현재 육지부 39.8km<sup>2</sup>, 해수면 372.5km<sup>2</sup>로 전체 412.3km<sup>2</sup>가 지정되었다. 이 지역은 여자만 보호를 위해 지정되었다.

## 2. 역사와 문화

### 가. 연혁

삼국시대의 둔병도는 백제에 편입되어 삼평군 예하의 돌산현에 속한 섬이었다. 5세기 중반에 이르면서 백제가 고구려의 남하로 국력이 크게 약화되고, 가야국이 남원과 섬진강 하류지방에 진출함에 따라 일시적으로 대가야에 편입되었다고 한다. 이때의 여수지역은 여수반도가 상다리현, 도서지역이 하다리현이었다. 따라서 둔병도 역시 하다리현에 속하였다.

백제는 538년 수도를 사비성으로 옮기고 전국을 중앙과 동서남북으로 구분하여 5방을 두었다. 방에는 방성(方城)을 설치하고 여러 크고 작은 성을 군 혹은 현으로 통제하여 지배하였다. 남방에 속하였던 순천·여수·광양지방에는 삼평군(平郡)이 자리잡고 있었다. 삼평군은 원촌(猿村), 마로(馬老), 돌산(突山) 등 3현을 속현으로 두고 있었다. 원촌현은 여수반도 일원이며, 돌산현은 돌산도를 비롯한 인근의 섬을 그 영역으로 하였다. 이때부터 여수지방에 처음으로 원촌과 돌산이라는 이름의 군현이 설치되어 적금도 역시 돌산현에 속하게 되었다.

백제가 멸망한 후에 신라는 전국을 9주로 나누고, 주 아래에는 군과 현을 설치하였다. 전남지방은 무주가 관할하였으며, 순천, 여수지방의 삼평군이 승평군으로 바뀌고 그 속현이었던 원촌, 마로, 돌산현은 각각 해읍, 희양, 여산현으로 변경되었다. 통일신라 시기 여수반도는 해읍현, 둔병도가 포함된 도서에는 여산현이 설치되었다.

고려시대의 여수는 해읍현이 여수현으로 개칭되고 돌산과 그 인근 섬을 관할하던 여산현이 백제시기의 돌산현이란 이름을 되찾았다.

조선시대의 여수는 군현이 폐지되고 여수지역에는 현이 설치되지 못하고 왜구의 침입에 대비하여 수군진지가 설치된다. 낭도는 돌산포만호진의 통제하에 있다가 중종 때 돌산포만호진이 혁파되고, 방담첨사진이 설치됨에 따라 고종32년(1895) 전라좌수영이 혁파될 때까지 전라좌수영이 통제를 받게 되었다.

고종 33년(1896) 2월 3일 칙령 제13호에 의하여 돌산군, 완도군, 지도군의 3개 도서군이 설치되어 돌산군의 초대 군수로 조동훈이 부임하였다. 이때 화정면은 화개면과 옥정면으로 분리되어 설치되었는데 둔병도는 옥정면에 속하였다. 당시 화개면의 면 소재지는 개도화산이었고, 옥정면 소재지는 적금도였다.



돌산군은 1914년 3월 1일, 18년 만에 폐군되었고, 여수군으로 통합되면서 화개면과 옥정면도 합면이 되어 화정면이 되어 둔병도 역시 화정면 소속이 되었다.

1530년에 편찬된 『신증동국여지승람』과 17세기 중엽에 저술된 『동국여지지』 및 1765년 경 8도의 읍지를 수집하여 편찬한 『여지도서』에는 “둔도(屯島)는 백야곶의 서쪽에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영남호남연해형편도』에서는 두음방도(豆音方島)라고도 하였다. 한편 1860년대에 제작된 『대동지지(大東地志)』에 대화도(大花島), 소화도(小花島), 낭도 등과 함께 두음방도(豆音方島)라는 섬의 이름이 보인다. “이 섬들은 모두 백야곶의 서남쪽에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 두음방도가 현재의 ‘둔병도’라고 볼 수 있다.

사서에 나타난 둔병도의 명칭

사서명	비변사인방안지도(1745)	호구총수(1789)	대동여지도(1861)	순천부지도(1872)
명칭	豆方島	斗音方嶋	豆音方島	斗音方島



호남연해형편도 - 두음방도



대동여지도 - 두음방도



둔병

## 나. 마을유래

마을 앞 작은섬과의 사이 갯벌에 썰물이 되면 생기는 둔병이 있어 생겨난 이름이다. 둔병은 그 깊이가 명주실 한 타래가 다 들어가도 끝이 없어 용굴이라 하였다는 이야기도 전해 온다. 둔병도(屯兵島)는 이름의 한자 뜻처럼 임진왜란 당시 전라좌수영 산하 수군이 고흥방면으로 이동하면서 임시 주둔하고 있던 곳이라 하여 둔병(屯兵)도라고 불렀다는 이야기도 전해온다. 그러나 충무공의 난중일기에는 여수와 고흥 사이를 지나는 시기의 기록이 잘 남아 있는데 당시에 둔병도에 진을 친 기록이 없어 잘못된 유래임을 알 수 있다.

둔병도의 섬이름 표기는 1896년 돌산군 설립 이전까지의 기록은 둔병의 이두식 한자 표기인 둠방도(豆音方島, 斗音方島)로 표기되고 있고 돌산군 설립 이후에 둔병도로 표기하였다.

임진왜란 당시 성명미상의 성주배씨(星州裨氏)가 순천에서 난을 피하기 위해 은신처로 처음 입도하였다. 그 후 전주이씨(全州李氏), 김해김씨(金海金氏), 인동장씨(仁同張氏) 순으로 입도하였으며, 입도 시조인 성주배씨의 후손들이 지금도 거주하고 있다.

## 다. 고고·역사유적과 유물

### 1) 둔병 조개더미

첫 번째 조개더미는 둔병마을의 남쪽에 위치한 작은섬의 북동쪽 사면부에 위치하고 있다. 조개더미 유적지와 주변은 방풍을 키우고 있다. 이곳은 해발 26m와 30m의 낮은 구릉을 연결하는 곳이며, 수습유물은 회청색경질토기편과 짐승 뼈 등이다.

두 번째 조개더미는 둔병도 북쪽의 쇠양치 끝 동쪽 만입된 밭에 위치한다. 이곳 조개더미에서는 회청색경질토기편과 짐승 뼈 등이 수습되었다.

마지막으로 조개더미는 첫 번째 조개더미에서 서쪽으로 100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다. 첫 번째 조개더미처럼 방풍을 키우는 밭으로 이용되고 있다. 동쪽은 낮은 구릉이고, 서쪽으로는 적금도가 보인다. 수습유물은 회청색경질토기편 등이다.



첫번째 조개더미 (2020)



두번째 조개더미 (2008)



세번째 조개더미

### 2) 둔병도요망<sup>11)</sup>

전라남도 여수시 화정면 조발리 산 108번지 일원의 북위 34° 37' 37.73" 동경 127° 32' 28.03" 해발 114m인 둔병산(屯兵山 - 기곶은 산)이 요망지로 추정된다.

둔병도요망(屯兵島瞭望)은 ‘조선후기의 지방도’의 「순천고돌산진지도(順天古突山鎭地圖)」에 나타나는데, 해중의 두음도(斗音島) 산정부에 초가(草家) 형태로 표현 후 ‘요망(瞭望)’이라 표기하였다.

11) 여수지역사회연구소, 『여수시 비지정 문화유산(봉수·요망유적) 기초학술조사』, 2019

요망지는 마을에서 제일 높은 산이며, 임진왜란 당시 기를 꽂아서 신호를 표시했다고 전해온다. 요망유적은 ‘요(凹)’자 형태로 토·석의 외부직경 3.2×2.8m, 석축의 내부직경 0.6×0.6m, 깊이 0.6m의 소형 구조물이 발견되었다. 지형상 동서로 긴 능선을 이루고 남북은 사면이다. 산정부에서는 사방으로의 조망이 가능한데 잡목으로 시야 제한적이다.



순천고돌산진지도 둔병도요망

주변 대응 가능한 봉수, 요망, 망대 등의 직선거리는 조발요망 2.1km, 사도요망 4.3km, 낭도요망 2.4km, 화양면 백야곶봉수 7.1km, 고흥 우미산요망 6.5km, 제도요망 10.7km, 백야도요망 8.5km, 상하도요망 6.2km, 하화도요망 8.3km이다.



둔병산 원경과 요망지 전경



## 라. 둔병도의 어제와 오늘

1968년 여름 전남에 심한 가뭄이 들었는데 이때 화정면의 많은 섬들 역시 가뭄으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멸치어장에는 민물이 바다에 흐르지 못해 멸치가 연안에 접근하지 않아 어획고가 30%나 감소하였고, 식수난은 더욱 심각하여 우물샘이 바닥나 둔병도와 조발도 등 섬마을주민들은 해상 5마일 떨어진 육지인 별교와 돌산까지 가서 식수를 구해와 먹어야만 했다.

한편, 1975년에는 겨울 가뭄으로 다시 한번 심한 식수난을 겪어야만 했다. 1974년 12월 1일부터 1975년 3월 5일까지 석 달 동안 비가 72mm밖에 내리지 않아 우물이 바닥나서 도선이나 어선을 이용 2~10km쯤 떨어진 이웃 섬에서 물을 날라다 먹어야 했는데 이마저도 폭풍주의보가 발효되는 악천후 때는 발이 묶여 심각한 식수난을 겪어야만 했다.

이후 우물을 파고 마을 뒤편 논밭 앞 해안가에 집수장을 만드는 등 식수난 해결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현재는 다리로 연결된 후에 상수도가 들어와 완전히 식수난을 해결하였다.



둔병도 우물과 집수시설

### 3. 섬 생활의 변천

#### 가. 둔병도의 생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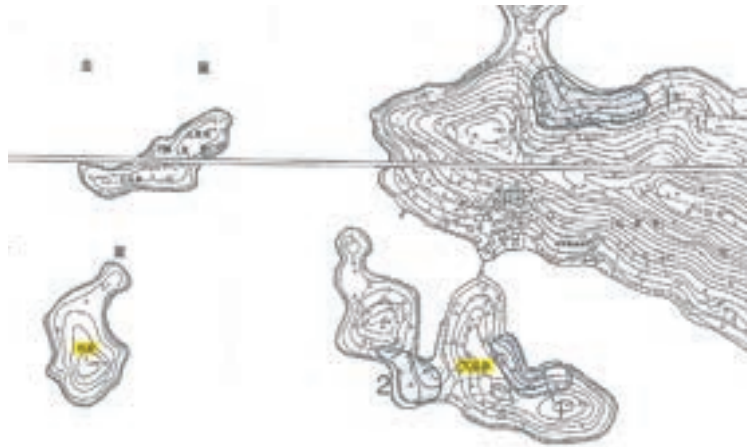
섬에서는 기본적으로 어업에 종사한다고 알고 있지만, 우리나라 섬 중에서 어업만으로 생계를 꾸려가는 섬은 한 곳도 없다. 섬 생활에서 최고의 생업 여건은 농업을 기반으로 어업을 겸하는 형태이다.

여자만 주변의 섬들은 이 모든 기반이 조성된 곳들이다. 그 중심에 위치한 둔병도 역시 마찬가지다. 농업과 어업을 겸하면서 산에서도 물자 취득이 가능한 지역이다.

둔병도라는 섬 이름의 유래 중에서 임진왜란 당시 군사들이 진을 쳤다는 설과 둔전을 일구어서 둔병이라고 했다는 설이 있다. 이러한 유래가 생겨났다는 것은 군사들이 진을 치기 좋은 지리적 위치였다는 것이다. 군사들이 지나다니기 좋은 이동 경로에서 비교적 가까운 곳이었다는 의미에서 생겨난 문화의 변용이다. 군사가 진을 치는 곳은 지리적 조건뿐 아니라 지형적 조건도 매우 중요한 선택 조건이었을 것이다. 지형적 조건으로는 우선 적으로부터 엄폐가 잘되면서도 식수와 먹을거리들이 풍부한 섬을 택했을 것이다. 식수와 먹을거리가 풍부하다는 것은 사람이 살기도 좋았다는 반증이다.

둔병도는 이런 지리적, 지형적 여건을 두루 갖춘 섬이다. 여자만의 입구이면서 적금도, 낭도, 조밭도가 둘러싸고 있다. 마을 앞 작은섬<sup>12)</sup>을 연결하는 다리는 둔병도 사람들의 정보교환소이다. 옆으로는 하과도, 상과도가 있어 은폐도 유리했다.

이런 지형적 여건은 바람을 막아주면서 땅도 기름져서 농사가 잘 될 수 있는 여건이다. 작은섬이 있어 주거지역 외의 추가 농지를 확보할 수도 있어 더없이 좋은 지형적 여건을 가진 섬이다.



작은섬을 하과도라고 잘못 표기한 지도 (문화유적지도)  
- 사진 아래 왼쪽에 있는 섬이 하과도이며 오도라고 잘못 표기하고 있다.

12) 마을 사람들은 앞섬이라고도 부른다. 많은 자료나 지도에서 이 섬을 하과도로 잘못 소개하고 있다.

## 1) 농축산업

### (1) 밭농사

둔병도는 주변의 조발도나 적금도에 비해 섬 전체 면적대비 농토가 넓은 섬이다. 섬지역은 급경사이면서 전체 면적의 ⅓가 주로 산악지역이다. 하지만 둔병도의 작은섬은 약 78km<sup>2</sup>의 면적 중에서 ⅔이상이 경사가 완만한 밭이다. 이런 좋은 여건을 갖춘 둔병도는 몇 년 전만 해도 여름엔 고구마가 주 생산품이었다. 겨울엔 보리가 주종이었다. 고구마는 겨울에서부터 봄 춘궁기까지 섬주민의 주식으로 사용되었다. 이 시기 먹을 것을 제외하고는 전량 절간을 만들어 판매하였다. 1900년대에 절간고구마를 보통 1가구당 150여 가마니 정도를 하고 많이 하는 집은 200여 가마니 정도까지 하는 집도 있었다.

이른 오후 작은섬과 연결된 다리에서 방풍을 달리고 있는 할머니 3명<sup>13)</sup>을 인터뷰했다.



김순심 / 조사자 / 최동엽 / 김양자 (왼쪽부터)

“절간은 얼마씩이나 했습니까?”

“옛날엔 우리 집도 절간 170가마니해서 상도 받고 했어 근디 절간 한가마니에 3만원 정도 했승께 돈도 아니여”

13) 김순심(1928년) - 현재 섬 거주 자중 나이가 가장 많다. / 김양자(1940년) - 남도 규포에서 시집옴 / 최동엽(1942년) - 19살에 남도 여산에서 시집옴



고구마 말리는 모습 (2008)

김양자 할머니의 얘기다. 모든 식구가 함께 한철 농사지어서 5백만 원 정도를 건졌다는 얘기다. 논도 거의 없었고, 겨울에는 보리농사가 주를 이뤘다. 고구마를 심고 나서는 밭이랑에 팔이나 녹두, 돈부를 심었다. 이렇게 심은 팔이나, 녹두, 돈부가 몇 가마니씩 되어 절간 이외의 돈을 만들었다. 수수나 조도 심었고, 콩은 지력을 놓이기 위해 윤년제로 따로 갈아 심어서 수확을 했다.

앞섬과 연결된 다리위에 가마니들이 10여 개 놓여 있다.

“이것들은 뭘니까? 저 푸대는 무엇이고 요즘은 무슨 일을 하고 사십니까?”

“방풍이여. 요즘은 방풍 하나라 바빠. 한해에 2~3차리 허는디 응산에서는 2차리 정도하고 양산은 4차례 하는 집도 있어. 근디 금이 내려서 이번 파시만 하고 안 헐라고 허네. 시방은 값이 내려서 돈도 아니여. 한 가마니에 40키론디 오후에 차가 달리러 올 거여. 시안부터 달리기 시작해서 허는 집들은 이달 말까지는 할 거여”

(응산 = 응달밭 / 양산 = 양달밭 / 시방 = 지금 / 달리러 = 수매하러 / 시안부터 = 설 전부터)



방풍농사





방풍수매

인터뷰한 날이 양력으로 4월 4일이었고, 설이 1월 25일이었으니 벌써 3달 이상 수확했다는 뜻이다. 지금은 1관에 2,000원 한다니 600g을 1관으로 환산하면 약 6.5관 정도이다. 한 가마니에 13,000원 정도를 받기 위해 아침 일찍 밭에 나가서 일해야 한다. 그렇게 일해 얻는 수확량이 하루 2~3가마니 정도라는 것이다. 그래도 마을 사람들에게는 이게 대단한 수익이다. 주변의 적금도, 낭도, 조밭도는 겨울에 다른 농사를 짓지 않지만, 둔병도는 방풍 농사로 한 해를 시작한다.

*“둔병도 사람들은 뽠뽠 기다니면서도 방풍헌다더만 죽음시롱 이고지고 갈라고 그리 할건가? 우리는 안허네.”*

라는 할머니 말 속에 내심 부러움이 묻어난다.

방풍 외에 마을 입구와 작은섬에 청보리밭이 간간이 조금씩 보인다. 보리는 심어서 추수하고 타작까지 하려면 상당히 복잡한 절차가 필요하다. 어중간하게 조금 심어서는 복잡한 절차 때문에 경제성이 떨어지는 작목이기도 하다.



청보리



익은보리



보리농사



닭장

“기계를 붙여서 타작을 하기도 어중간하게 보리를 뭐 하러 저렇게 조금 심었답니까?”

“보리는 질금 놀라고 그래. 닭도 주고 글라고 짜끔 심는 것이여” (질금 = 엇기름 / 놀라고 = 놓으려고(키우려고), 짜끔 = 조금)

보리를 심는 이유가 닭모이와 질금을 만들기 위함이다. 질금은 식혜, 엇, 고추장 등을 만들 때 없어서는 안 되는 기초 재료이다. 보리를 잘 말려서 적당하게 싹을 틔워 말린 후 그것을 빵아 놓고 재료로 쓰는 것이다. 식혜는 이 엇질금 가루를 적당량 광목천에 싸서 넣고 꼬들하게 찐 밥과 미지근한 온도의 물을 넣고 밥알이 떠오를 때까지 삭여서 만든 음료이다.

“요즘은 고구마는 안 심나요?”

“돼지 난세 고구마는 못해. 옥수수도 못심게 해. 돼지가... 옥수수는 백야도 갔다오다가 사묵고 그래. 돼지가 막 달라들어서 못심어. 방풍하고 나서는 밭메고 깨 그런것하고 고추, 마늘만 조금하고 놀지 뭐” (난세=때문에)



마늘



고추 말리기 (2009)

## (2) 논농사

인근의 다른 섬에 비해 둔병도는 논이 적어 논농사를 지었다고 특별히 기억하는 주민들은 없다. 다만 논농사는 원래 벼를 심는 것이 주였기 때문에 벼를 심었고, 겨울에는 유채를 갈아서 이모작을 했다고 한다.

## 2) 수산업

둔병도는 건강하고 영양분이 풍부한 플랑크톤이 많은 뺨을 가진 여자만 입구에 위치한다. 여자만의 넓은 갯벌 중에서 조밭도, 낭도, 적금도가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어서 큰 파도를 비켜갈 수 있는 천혜의 요새이다. 지금은 만 입구에 매립을 위한 방조제 건설로 바다의 생태계가 많이 변화된 상태지만, 연근해의 난류성 어족들이 풍부해 연안 양식어업도 성행했다. 특히 본섬과 작은섬 사이의 해안은 황금어장으로 바다 영을 틀 때면 자연산 꼬막을 채취하여 가구당 수백만 원의 소득을 올리기도 했었다. 어족자원이 풍부하여 경제적으로도 여유로운 섬 중의 하나였다.

꼬막양식업과 김밭(양식업), 게통밭, 문어통밭, 장어통밭 등 전통 어로법인 통밭어업으로 상당한 수입이 되어 풍족한 생활을 할 수 있었다.

한때 여수 돌산실업고등학교에서 김양식을 보급하면서 시험재배를 했던 곳이기도 하다. 처음에는 쇠를 뺨등에 꽂아 걸어 들어가 양식을 하였다. 양식산업이 발달하고, 생산량이 늘면서 김밭을 물 위에 띄우는 방식으로 배를 타고 김을 채취하는 대량생산 방식으로 바뀌었다.

“김은 언제까지 했습니까? 안 한 지 한 20년 되었나요?”

“글 안 해 한 10년 됐냐? 김 해갖고 이리 돈이 됐구만. 우리 아범 죽을 때까지 했슨게 안 한 지 한 10년 됐지?”



마을 앞 갯벌

김은 추운 겨울 아침 일찍 바다에서 채취해 가지고 와 물김을 잘게 잘게 자른다. 잘게 자른 물김을 깨끗이 씻어서 김틀을 놓고 김 발장에 뜬다.<sup>14)</sup> 김을 말릴 때는 양지바른 곳에 벗짚으로 크게 틀을 짜서 세운다. 이 틀에다 일일이 수작업으로, 뜬 김 발장을 하나씩 세워 붙여서 낮 동안 말린다.

해질녘에 김 발장을 걷어서 밤새 식구들이 둘러앉아 김을 발장에서 떼어내는 작업을 한다. 발장에서 분리해 낸 김을 다시 100장씩 벗짚을 이용해서 묶는데 이것을 한 손 또는 한 톱이라고 한다. 일제강점기에는 수매상이 있어서 수매상의 띠지를 가지고 묶었다고도 한다. 이때는 10장씩 묶은 것을 다시 10개를 묶는 방식으로 한 손을 묶었다고 한다. 이렇게 묶은 김을 수협에 공동으로 판매하였다.

마을 뒤편 움푹 들어가 방파제처럼 막아 놓은 곳을 빨가라고 하는데 둔병도 사람들의 공동 깃것 밭이다. 여기는 마을 어촌계에서 관리하면서 꼬막과 바지락을 기른다. 외부인이 잘 모르고 여기에 들어가 꼬막이나 바지락을 채취하면 돈을 물어야 한다. 변상금의 기준은 정해져 있지 않고 지금까지 벌금을 물었다는 사람도 없긴 하다.



김말리기(고흥) 김걸어 떼기(고흥)  
(사진제공 김자윤)



계통밭



14) 물김을 「짐틀(김틀)」이라고 하는 네모난 틀에 대고 김발에 붙이는 작업



빨가와 빨가 경고문



**“그래도 몰래 파다 묵어버리면 그만이지 뭐”**

하는 어르신들의 푸념이 지금까지는 안전했다는 것을 반증한다.

꼬막과 계통말은 연중 채취를 하고, 4~5월에는 바지락을 채취한다. 여름에는 문어잡이, 늦은 겨울에서 봄까지는 톳을 채취한다.



둔병도 북쪽 독도 인근에서 조업중인 어선



둔병도 어선

## 나. 둔병도의 생활문화공간

둔병도 사람들의 정보 교환 장소는 매우 추운 겨울을 제외 하면, 주로 마을회관 앞의 작은 섬과 연결된 다리이다. 다리에 평상을 2개 놓고 쉼터를 만들어 놓았다. 바로 인근에 팔각정과 마을회관이 있고, 100여 미터 앞쪽으로는 노인정이 있는데도 그곳보다 다리에 머무르는 시간이 더 많다. 배를 타고 마을을 오는 사람들이 이 길을 경유하고, 서로의 정보를 공유한다.



둔병도 작은다리 쉼터

실제 둔병도의 경우는 생업에 바빠서 마을 사람들이 같이 모여 노는 시간이 별로 없었다. 겨울에도 김밭과 통밭업을 하면서 농사까지 지어야 하니 잠시도 허리를 펼 시간이 없었다. 설에도 정신없이 바빠서 설을 따로 쉰다는 분위기도 내지 못했다고 한다.

**“궁께 노랑쉐타가 끄스름이 쪼랑쪼랑 혀도록 입고 허리 펼 시간도 없었지”**

잠깐의 농한기에는 김 밭장을 만들기 위한 띠를 뽑으러 다니는 것이 일어났다. 마을 뒷산이나 가까운 곳은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이 띠를 채취하는 바람에 띠를 찾기 어려웠다. 그래서 띠를 뽑기 위해 농한기 때 삼삼오오 짝을 지어 순천, 고흥, 군산 등지로 다녔다. 이 지역 사람들이 멀리 군산까지 띠를 뽑으러 갈 수 있었던 것은 주변 적금도 덕이다. 적금도 사람들이 군산 해망촌으로 이주하여 군산 쪽에 많은 인맥이 형성됨에 따라 멀리 군산까지 갈 수 있었다.

밤에는 김 밭장을 만들고, 통밭을 할 때는 통밭 미끼를 채우고 정리하느라 따로 모여서 놀거나 하는 시간은 거의 없었다. 마을에서 같이 모여서 놀 수 있는 시간은 당제를 모시는 날이었다. 이날은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먹고, 하루 정도는 놀 수 있는 날이었다.

둔병도에는 교회가 있지만, 아직도 당제를 매년 지내고 있다. 마을회관 앞 정자가 있는 조그만 언덕을 작은 당산이라고 해서 예전에는 바다 풍어제나 용왕제를 지냈다.



마을회관 앞 정자



조그만 언덕 작은당산

이 마을 김경수<sup>15)</sup> 어른신의 증언이다.



김경수씨 인터뷰

“지금 여기 사는 사람 집만 20호이고 35명 정도 거주해. 여기 인구가 많이 잡혀 있긴 한데 혼자되면 애들한테 왔다 갔다 해버리던가 하는 사람들이 많아 실지 사는 사람과 차이가 나.

조발도나 낭도와 다르게 우리마을은 남자들이 많아. 남자들 기가 췌 모양이여 (허허하시며 헛헛한 웃음을 웃으신다). 그런지 저런지, 물이 좋았는지 둘이 살라고 당산 할아버지가 점지했는지 모르겠어.

당산이 옛날엔 기와집인데도 쓰러져 가지고 가빠를 쳐놓고 제사를 지내다가 도저히 안되니까 마을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스라브를 쳐서 지었어. 당집에 있는 현판은 내가 붓글씨로 썼는데 현금자 명단이야. 명단엔 노인분들이 많고 돌아가신 분들도 많은데 35년 정도 됐어. 그땐 돈으로 5천 원에서 만 원 정도씩 냈어. 남면사람 김영로가 그때 돈으로 10만 원을 내서 젤 많이 냈지.

당집을 지을 때 인부를 사서 여수 목수가 와서 만들었는데 그때 기구망상한 것을 사진으로 남겼으면 나가~~막(한참 말을 잊지 못한다.) 말도 마소. 순천서 벽돌을 사오는데, 그때는 화양면 서촌 고개가 비포장이었어. 목수가 자기가 땀겨서 쓴데가 가격이 싸다고 순천서 사가지고 오는데 서촌에서 차가 축 내려앉아서...” (가빠=텐트)

15) 김경수-1945년생 해방동일로 농협이사과 대의원 마을 이장 등을 수십 년 했다.

당집을 만들던 때의 힘들었던 회한에 젖어서 더 이상 말을 잊지 못한다.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섬 지역에 정착할 때 대부분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등 지도층들이 먼저 기독교에 합류했다. 그러다 보니 교회를 세우거나 새마을운동의 중심이 된 지역이 당집이 있던 장소인 경우가 많았다. 공공용지이면서 활용할 수 있는 지역으로 종교적으로도 거슬렸던 곳이 당집이다 보니 당집이 없어진 지역도 많다. 당집이 있던 곳은 숲이 우거져 운동시설이나 마을 공원으로 조성되기도 하지만, 둔병도는 당집이 그대로 남아있고, 아직도 당제를 지내고 있다.

*“당제를 아직도 지내고 있기 때문에 교회를 믿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어. 그래도 교회하고도 잘 지내. 크리스마스때는 교회에 헌금을 하자해서 둘이 살면 2만 원 혼자 살면 1만 원해서 목사님을 오시라고해서 상을 줘. 대신 우리는 교회를 안다녀도 당신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평을 나쁘게 하지 않을 거니 당신들도 전도함시롱 성가시게 하지마라 해서 이런식으로 해나왔어. 그러니까 목사님도 잔치만해도 모셔다 밥드리고 다챙겼어. 교회다닌 사람만 목사님을 챙겨라 그런건 없어. 오히려 주민이 목사님을 더 챙겼어.”*

교회와 마을주민이 협력해서 살고 있다는 것을 힘주어 강조한다. 당집은 종교이기 이전에 우리의 문화라는 것을 인식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다.

마을 앞 작은섬 입구에 새마을운동이 한창이던 1960년대 4H 표지석이 아직도 선명하게 남아있다. 4-H라 함은 머리(Head), 마음(Heart), 손(Hands), 건강(Health)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의 머리글자(H) 네 개를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들 단어의 의미를 각각 지(智), 덕(德), 노(勞), 체(體)로 번역하여 사용했다.

「4-H운동」은 국가의 장래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에게 「4-H회」를 통한 단체활동으로 지, 덕, 노, 체의「4-H이념」을 생활화함으로써 훌륭한 민주시민으로 키우는 동시에 지역



이장집 담벼락 십자가



4-H 표지석



사회와 국가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일종의 사회교육 운동이다. 「4-H운동」이 다른 청소년 운동과의 차이점은 자연을 사랑하고 농촌에 애착을 갖게 하며,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배양 하는데 있다. 일반적으로 청소년 교육이 지육, 덕육, 체육에 역점을 두고 있음에 비하여 「4-H운동」이 노육(勞育)을 추가적인 대상으로 하고 있음은 바로 이런 이유에서이다. 따라서 「4-H운동」은 현장교육과 과제실천 등을 4-H활동의 중요한 대상으로 꼽는다. 4-H운동은 한때 지구촌의 80여 개 국가에서 전개되고 있는 범세계적 청소년 운동의 하나였다.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의 새마을운동과 연계된 4H정신을 배우려는 국가들이 많다고 한다.

“다리가 놔져서 귀찮은게 많소. 사람들이 들어 읍시롱 화장실 문제가 큰 문제요. 파출소 자리도 경상도 부산 사람한테 팔아가지고 말이 많소. ‘뉴딜 300’인가 뭔가 되서 공동 화장실 지라고 돈이 나왔는데 몇 번 궁글어 다녔는데도 못짓고 말었어. 정부에서 지원될 때 잘해야는데 한번 반납되면 안되는데 저쪽집이 안된다고해서.... 저쪽집은 괜찮은디(마을회관 옆 장모씨의 집-이후에 만난 마을 어른도, 이전에 만났던 마을 할머니들도 모두 대놓고 그집에 대해 아쉬움을 쏟아 놓는다) 여기다하면 좋을건디 못하게해서 못했어. 인자는 할랑갑데. 괜히 못하게한 사람만 마을사람 모두의 적이 되어 부렸지. 자기 땅하고는 상관도 없는 408번지인데 요집이 안된다고해서 돈이 반납되어 버리고 이장도 골치 아팠어.

다른 섬들은 중간에 일하는 사람들이 나룻배와 협상해서 선로를 나룻배에 팔았는데 우리는 내가 반대해서 안팔았어. 그때는 불편해서 동네 사람한테 욕도 많이 얻어 먹고 지하고(도선을 하던 사람) 싹도 많이 허고 욕도 많이 먹었어. 그래도 내가 안된다 해서 끝까지 안취갓고 우리 동네는 배가 다녔어. 주민들도 나를 욕을하고 했지만, 지금은 잘했다는 것이여. 다른 섬들은 그때 항로가 없어져 버려서 배가 안다니는데 우리동네는 그때 안팔아서 항로가 남아 있어서 여객선이 다녀. 마을 어르신들은 아직도 여객선으로 다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여.

많은 짐을 가지고 버스 정류장까지 가는 것도 쉽지 않을뿐더러 버스도 하루에 26-1과 29번이 4번 정도 있는데 막차가 여수 출발이 2시 10분이기 때문에 이용하는게 불편하지. 9월경에 마을버스가 나오기는 한하는데 나진인가 세포에다가 퍼준다는데 많은 짐을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그것도 사용하는데 어려워. 가끔 시내에서 일을 보고 배를 놓치면 버스를 타고 오긴하는데 그것도 너무 빨라서 버스타는 사람보다는 택시를 타고 오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

**여수**  
태평양1호 운항시간표

※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여수출발	백마	남도	서도	상좌도	좌좌도	오전	백석	백마	여수도착
06:00	06:45	07:20	07:30	07:40	07:50	08:00	08:10	08:30	09:10
여수출발	백마	백석	오전	좌좌도	상좌도	서도	남도	백마	여수도착
14:00	14:45	15:05	15:15	15:30	15:40	15:50	16:00	16:40	17:30

※요일

여수출발	백마	남도	서도	상좌도	좌좌도	오전	백석	백마	여수도착
06:00	06:45	07:20	07:30	07:40	07:50	08:00	08:10	08:30	09:10
여수출발	백마	백석	오전	좌좌도	상좌도	서도	남도	백마	여수도착
14:00	14:45	15:05	15:15	15:30	15:40	15:50	16:00	16:40	17:30

※ 제주 일몰일은 휴항합니다.  
※ 동명선 제주 항소달간 기항합니다.  
※ 여수 출발지와 도착지는 여수시 교동 연안여객선 차역입니다.

태평양1호 운행시간표



태평양1호



버스정류소 표지판

연륙 연도교가 생기고 섬사람들이 무조건 좋을 것만 같지만, 불편한 점도 훨씬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짧은 시간 내에 많은 것을 갑자기 바꿀 수는 없지만, 불편함은 시행착오를 거쳐 계속 해소해 가고 있다. 2020년 4월 14일에 인터뷰를 했는데 버스가 운행되면서부터 계속 민원과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다. 이후 5월에는 마지막 버스 도착시간이 오후 5시 30분으로 바뀌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 먹을 것이 귀했다. 이럴 때 마을 아이들의 유일한 간식거리는 빵튀기였다.

“빵튀기 장수가 한번 오면 보통 한집에 너댓굴 썩을 튀었어. 여그(마을회관앞 공터)차를 대놓고 아그들이 학교 갔다와서 지켜 있어라하면 어른들이 와서 세치기해서 바꿔버려. 봄에 빵튀기가 오는 디 그때는 옥수수 농사를 지으니까 강냉이도 튀고 보리도 튀고, 설에 남은 떡국 같은것도 튀~써.

설에 떡국을 뽑을라면 보리 방아집으로 쌀을 찌가지고가서 뻘는디 나중에 보리방아 찧는 기계가 못쓰다해서 기계를 새로해서 뽑았어. 그라느면 손으로 찌 뽀시가 갖고 손으로 뻘어. 값은 돈으로 주는데 그때 안받고 설쇠고 한가할 때 받으러 다녔어.”

(그라느면 = 그렇지 않으면)

쌀이 귀했던 둔병도는 쌀밥 대신 메조밥을 많이 먹었다. 차조는 밥에 넣으면 가라앉아 전부 누룽지가 되어 버리기 때문에 메조를 주로 밥에 얹어 먹었다고 한다. 대신 차조는 썩을 넣고 떡을 해먹었다.

“둔병섬 사람들은 옛날에는 적금도보다도 부자였어. 조발리는 방풍 허리가 없승께 안혀는디 우리는 안혀는 사람이 없어. 글고 조발리는 시내가서 식당 그런 것 허는 사람도 많은데 둔병섬은 식당 허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어.”

할머니들의 이야기에는 슬며시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없어도, 둔병도 출신들은 공무원이나 사업가들이 많음을 자랑하였다. 할머니들의 질곡진 삶이 곧 이 섬의 역사이고 문화이기도 하다.

〈김순심 할머니 : 1928년생〉 17살에 시집을 왔어. 원래는 조발도로 시집을 갔는디 우리 영감이 낭도 통학배 헐라고 둔병섬으로 이사를 와부렸어. 아~들들 실어다 나를라고. 나는 자식도 없고 영감도 죽었어.

〈김양자 할머니 : 1940년생〉 낭도 기포에서 시집왔어. 이 둔병섬 다리밑 요쪽에 둠병이 있어서 둠병섬이라고 했다든디 그 유래는 우리도 몰라. 그건 전에 시집온께 우리 시할머니가 있는데 밍주고리 하나가 다 들어간다고 조심하라고 하더라고. 저기 물이 나면 저그만 퍼래. 저그 들어가본 사람은 없응께. 우리집은 13명이 살았어. 시할머니가 계셔서 설이 되면 동네 사람들이 다 세배와서 맨날 부족했어. 설이 되면 세배오는 사람들 떡국 해줄라네, 김발 헐라네. 그 노랑쉐타 그게 끄스름이 끄실러서 주렁주렁해. 시방은 존 연탄불에 허지만 그때는 설이 돌아오면 웬수여 웬수. 김할라네 떡국할라네....

〈최동엽 할머니 : 1942년생〉 참!! 19살에 여기 시집와갔고 요상헌 시상을 다 살었네. 그래 갖고 이렇게 늙어 버렸어. 60년을 살었네. 우리 큰딸이 오난해 환갑이여 19살에 와서 아무 짬도 모르고 부모가 가랑께 왔지 뭐드러 올건가~ 자석은 아들 셋에 딸 하나 있는디 보통 5명 정도 낳는 사람들이 많은디 나는 적게 낳어. 우리 아범이 큰 아들인디 동성간들이 많아서 성을 가시싸서 자석들을 쪼끔만 낳어.

## 다. 선박

둔병도에서 어선의 경우 1997년 말 기준으로 5ton 미만 동력선 20척이 등록되어 있었다. 그러나 2020년 5월 기준 여수시에 등록된 자료에 따르면 5ton 미만 동력선 3척이 등록되어 있어, 1997년 말과 비교하면 17척이 감척되어 85%의 감척 비율을 보였다. 이는 어선을 이용하는 어업인구 감소와 2000년대 이후 정부에서 시행한 지속적인 노후 어선 감척 정책의 결과 및 주변 어장에서 어획물의 감소 등의 요인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어선어업으로 인한 수익이 많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둔병도의 첫 여객선은 1973년 4월 4일에 취항한 해영호가 운항한 것으로 보인다. 1980년대와 1990년대에서는 1989년에 취항한 뉴시프린스호와 1995년에 취항한 청해호가 운항하였다. 이후 1999년 초에 여수연안여객터미널에서 출항하는 화정면 일대 여객선의 항로가 일부 변경되면서 2013년까지 태평양해운의 백조호가 취항하다가 2013년에 (주)태평양해운에서 취항한 태평양 1호(40ton급, 90명 정원)가 운항하였다. 2020년 2월 대교가 완전 개통되면서 매주 2회 운항하던 것을 2020년 5월 현재 매주 1회(화요일)로 운항 횟수를 축소했으며, 조만간 운항을 중지할 것으로 보인다.



백조호 / 태평양1호 / 둔병도의 어선 (시계 방향)

## 라. 둔병도 주민들의 생애사

### 둔병도 당집의 역사 김경수 씨



김경수씨는 해방둥이 을유생으로 둔병도 404번지의 논놀에서 태어났다. 대부분 마을의 집들처럼 섬집 초가집에 5남 3녀 중 차남으로 태어났다.

김경수씨 일족이 둔병도에서 살기 시작한 시기는 5대조 할아버지부터였다고 한다. 처음 할아버지는 상화도에서 살았는데 상화도의 생활여건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여 고흥 봉래면으로 이사가려고 계획을 세워 착실히 준비했다. 예정된 날이 되어서 이삿짐을 싸서 고흥 봉래를 향하는데 거친 풍랑이 일어났다. 할아버지는 바람을 피하려고,

남도과 둔병도 사이 바다로 진입하여 고흥으로 향했지만, 풍랑이 더욱 거세지자 둔병도에 피항을 하게 되었다. 하지만 바람은 며칠 동안 이어지고 바람이 잦아들기까지 보내는 사이에 둔병도에 살던 배씨와 주거니 받거니 의형제를 맺고 둔병도에 정착하게 되었다고 한다. 지금처럼 기상 정보를 미리 알 수 없었던 시절이라 당시에는 풍랑으로 어부들이 목숨을 잃는 경우가 많았던 시절이었다.

당시 둔병도에는 국민학교가 없어서 남도로 통학선을 타고 다녔는데, 8남매나 되는 자녀들을 모두 가르치기 어려웠기 때문에 여자들은 학교를 다니지 못했다.

김경수씨가 국민학교를 다닐 무렵이 되자(1952년) 그의 아버지는 큰 형이 다니는 남도로 학교를 보내질 않고, 외가가 있던 육지 마을인 화양면 이목리 자치내마을로 보내서 1학년을 다니게 했다. 섬에서 섬으로 매일 통학선을 타고 다니던 학교생활이 위험하기도 한데다 어린이들에게는 힘에 버거운 일이었기 때문이다. 당시 남도를 다니던 통학선은 여객선인 종선을 운행하던 사람이 맡았는데 당시 요금을 개인별로 매일 받는 게 아니고, 둔병도 소유인 홍창도(홍도)의 관리권을 종선 선주에게 맡겨서 거기서 나는 채취권으로 요금을 대신하였다.



홍도

당시 리사무소에 사용하던 땀감도 주민들이 합동으로 부역을 해서 마련했다. 홍창도의 소나무 가지치기를 하면 50~80단 정도의 소나무 땀감을 만들어 사용했다고 한다.

김경수씨가 자치내에서 학교를 다닌 이유 중에는 할아버지까지 7대 독자였던 손이 귀했던 집안의 가풍 때문이기도 했다. 할아버지는 배를 타고 학교에 통학하는 것이 위험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손자가 안전한 육지에서 학교를 보낼 방법을 찾아 외가를 선택했던 것이다. 할아버지의 자손에 대한 애착은 유명했는데 김경수씨 어머니가 항상하던 푸념이 “내가 느그들 할아버지 때문에 술을 배웠다. 느그 할아버지가 혹시나 아기에게 먹일 젖이 부족할까 봐 막걸리를 사와서 며느리한테 억지로 많이 먹게 해서 내가 술을 많이 먹었어! 그래 내가 술이 늘었다.”였다고 한다.

그러나 초등학교 1학년 때 지냈던 자치내 생활도 힘들긴 마찬가지였다. 당시 외가 형편도 넉넉한 편은 아니었고, 당시 다녔던 화양국민학교도 자치내 마을에서 3.7km나 떨어져 있어 1학년 학생이 걷기에는 너무 먼 길이었다. 자치내에서 학교생활은 2학년까지 이어지다 그만두었다. 당시 너무 힘들게 자치내에서 학교 다니는 모습을 본 할아버지가 당장 여건이 좋은 여수로 보내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2학년 중간에 지금 여수시 중앙동(현 고소동) 인근에 있는 고모집으로 거처를 정하고, 여수 중앙국민학교로 전학을 하였다.

김경수씨의 아버지는 고기잡이가 직업으로 처음에는 조그만 주낙배를 사서 3~4명의 선원과 함께 서해까지 가서 고기를 잡았다. 당시 배는 무동력의 돛이 달린 풍선이었는데 한 번 고기잡이를 나가면 수개월씩 집에 오지 못하고, 1년에 3~4차례 오는 것이 전부였다. 당시에는 군산을 근거지로 해서 마을에서 선원을 구한 뒤 고기잡이를 했지만, 아버지의 원정 어업이 실통치 않아서 김경수씨가 국민학교를 다니던 시절에는 주낙배 사업을 접었다.



둔병분교

중앙국민학교를 졸업하고 여수중학교를 2년쯤 다니다가 그만두었다. 18살이 되어서 여수 생활을 접고, 둔병도로 돌아온 뒤에는 부모님의 일을 도우며 생활하였다. 당시에는 둔병도에 교실 한 칸 분교가 생겨서 낭도로 다녔던 초등학생들이 둔병도에서 학교를 다닐 수 있었다. 처음에는 1학년부터 5학년까지 있었는데 학생 수는 15명 정도였다. 당시 학교

에는 한 명의 선생님이 배치되어서 출장이나 여러 학년의 공부를 보조하는 사람이 필요했다. 당시 김경수씨는 본인이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보조교사 일을 월급도 받지 않고 군대 갈 때까지 봉사했다.

22세에 결혼했는데 같이 둔병도에 살던 친구의 여동생을 눈여겨보았다가 마음도 전한 뒤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중간에 사람을 넣어서 혼담을 진행한 뒤 성사되었다. 결혼식은 전통 혼례로 마을에서 치렀다. 마을 공동 소유로 있던 가마를 타고 논놀에 있던 신랑 집에서 마을 중간에 있던 처가에까지 신행길이 이어졌다. 약식으로 함진아비가 앞장을 선 뒤 신부집 앞에서 함팔이를 시작으로 결혼식이 진행되었다. 첫날은 신부집에서 보내고, 다음 날 신랑 집으로 가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결혼하고 1년 뒤 23세에 입대했다. 논산에서 훈련을 받고, 배치를 받은 곳은 조치원에 있던 건설공병단이었다. 후방이어서 비교적 편하게 군대 생활을 했는데 제대 무렵에는 구례에서 근무했다. 군대를 다녀오니 부친께서 둔병도 마을에 오두막이지만, 분가를 준비해 놓아서 홀로서기가 시작되었다. 슬하에는 3남 1녀의 자녀를 낳았다.

부지런하고 의욕이 넘치던 시절이라 30세쯤 되어 조금씩 모은 돈 40만 원을 준비해서 어선을 사게 되었다. 당시 적당한 어선이 화양면 횡도에 있다는 말을 듣고 찾아가보니 배값이 70만 원이었다. “맘에 드는 배라서 지금 40만 원밖에 없는데 언제까지 값을 테니 젊은 사람

믿고 배를 저에게 파십시오” 하니 선주가 망설이다가 “젊은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으로 보여 배를 넘기네”라고 하면서 배를 넘겨받아 고기잡이를 시작하게 되었다. 하지만 처음으로 해 보는 사업은 신통치 못해 배도 팔게 되었고, 아내의 힘으로 마련한 4마지기 밭까지 넘기는 시련을 겪었다.

한동안 의기소침해 있다가 분위기를 전환을 위해 집을 짓기로 하고 적금도에서 기와집을 사서 옮겨 짓는 새집 건축을 시작했다. 당시 밭을 판 돈 일부가 남아 있어 35만 원 정도로 적금도 집을 매입하였다. 새집을 짓는 일은 집안의 분위기를 전환하는데 성공적이었다. 의기소침했던 집안 분위기도 좋아지고, 밭을 팔았다는 자괴감도 위안이 되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또 한 번 성주를 하게 되었다. 평소 아내는 환경이 나쁜 논놀보다 동네 중앙으로 옮겨 오고 싶어 했다. 먼저 동네 중앙에 살던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을 판다고 해서 그 집을 사려고 했을 때, 마침 마을에 새로 들어온다는 사람이 김경수씨의 집을 사고 싶다고 전해왔다. 덕분에 일이 쉽게 풀려서 새로 산 집을 헐고 슬라브로 건축을 새로 해서 새집으로 이사를 할 수 있었다.

30대 예비군 시절에 예비군 소대장을 시작으로 마을 이장, 어촌계장, 영농회장 등을 맡아서 봉사하기 시작했다. 아버지 때부터 도왔던 마을 당제의 부당주를 거쳐서 마을 당제의 당주도 오랫동안 맡아오며 당제를 모셨다. 어린 시절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당제를 지극정성으로 모셨기 때문에 당시에는 당집이 김경수씨 가족 소유라고 착각했을 정도였다고 한다.

둔병도 마을에는 김경수씨 8남매 중 4형제가 살고 있는데 형제들도 마을 일에는 적극적이다. 우선 김경수씨가 마을 노인회장과 영농회장을 맡고 있고, 4살 아래 동생이 이장과 어촌계장을 겸직하고 있으며, 부녀회장은 이장의 처인 제수이다.

여수시에 있는 대부분 마을에서 오랫동안 이어오던 당제가 사라지는 것이 안타까웠지만, 현실적인 여건으로 포기하고 있다. 몇몇 마을에서는 당제를 멈추고 나서 마을에 나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한다고 하여 다시 당제를 시작해 보았지만 한번 멈추어버린 시류를 극복하고 이어나가지 못하고 있다. 둔병도의 경우는 특별해서 마을주민이 아직도 지극정성으로 당제를 유지하려 하고 있고 어려운 여건도 감수하려는 의지가 있다. 김경수씨는 최소 10년은 유지할 수 있다고 한다.

예전에 비해 복잡하고 형식적인 부분들은 과감히 버리고, 간소화하여 실제 당제를 모시는 일에 초점을 두고 제를 모신다고 한다. 특히 많이 달라지게된 형식 중 하나가 당제의 필수요소라 여겼던 풍물을 구성할 사람이 부족하고 팽가리나 징, 북, 장구를 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지금은 당제굿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제를 올리는 일도 상당, 중당, 하당으로 나뉘어서 올리던 의식을 상당에만 한정하여 제를 모신다고 한다. 하당은 용왕께 올리던 제례의식이었으나, 지금은 지내지 않는다고 한다.





둔병도의 마을 당제 당집에서 제를 마치고 하당에서 제를 올리고 있다.

둔병도 주민들이 믿는 당제의 영험은 상당히 구체적이다. 일제강점기부터 마을에서 군대에 가거나 전쟁터에 갔어도 전사자가 없었고, 바닷일을 하는 사람도 사고로 죽은 일이 없다고 한다. 흥미로운 일이 한 가지 더 있는데 대부분 마을에서 남자가 여자에 비해서 단명하게 보통이고, 할머니만 혼자 사는 가정이 많은데 둔병도의 부부들은 대부분이 함께 해로하며 살고 있다고 자랑한다.

옛날 둔병도의 당집은 집이 없는 형태로 돌을 쌓아서 만든 제단만 있었다고 한다. 이후 일제강점기에 돌제단 자리에 목조로 집을 짓고 기와를 얹어 당집을 만들었다. 1970년대 들어서 기와집 당집이 무너졌으나, 한동안 방치되는 것을 보고 김경수씨가 직접 주민을 설득해서 당집을 만들기로 했다. 1976년 새 당집이 만들어졌는데 당시 충분한 돈이 없었기 때문에 직접 해야 할 일이 많았다. 벽돌도 값이 저렴한 순천서 실어 왔는데 당시만 해도 화양면 길이 비포장이라 화양면 서촌에서 이목으로 넘어가는 비포장 길에서 벽돌을 실은 차가 기우뚱하는 바람에 벽돌이 도로에 쏟아지고 말았다. 많은 벽돌은 몇명이 다시 쌓아서 트럭에 싣기란 쉽지 않았는데 날도 저물어 갔다. 운이 좋았던지 당시 중학교에서 돌아오던 이목마을 중학생 무리가 함께 덤벼들어 무사히 이목마을 포구까지 싣고 와 벽돌을 내릴 수 있었다. 당시 학생들에게 너무 고마워서 빵과 음료수를 사주기도 했다. 다음날 마을주민들이 동원되어 작은 배 여섯 척으로 나눠 실어와 당집을 지을 수 있었다.

1970~80년대까지도 어려운 일을 맡긴 당주에게 사례를 지급한 예는 없었다. 그러다 80년대 들어서 처음 20만 원 정도를 지급하다 조금씩 올라 120만 원까지 사례를 하였다. 그러나 최연소가 70대인 섬마을의 살림살이가 넉넉하지 못한 현실을 감안해 2018년부터 절반인 60만 원으로 낮추었다고 한다. 둔병도 마을의 공동자금은 마을 해변의 어장을 임대하고 얻는 수입으로 충당한다. 대략 1종 어장지인 2,500만 원 해삼 밭에서 5~6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발생한다고 한다. 바다의 여건이 예전처럼 좋지 못하기 때문에 변수가 많은 게 현실이라 변수가 많다고 한다.

김경수씨의 마을 당제에 대한 애정은 결국 섬의 이웃 공동체에 대한 애정이라 할 수 있다. 젊어서부터 마을의 굶은일을 맡아오면서 자연스럽게 몸에 베어버린 사명감이요, 책무이다.

당집이 없던 시절 마을의 소가 당집 제단을 건들면 그 자리에서 해를 입었다고 한다. 당제를 모시던 한해 언제에는 액을 물리친다는 황토를 지고 당집을 올라오는데 지계를 붙잡는 느낌이 강해지면서 제대로 걷지 못하게 되었다. 곰곰이 생각하다 다른 곳으로 가서 새 황토를 가지고 올라오니 아무렇지도 않아서 이상하다고만 생각했다. 뒤에 살펴보니 처음 황토가 있던 자리 위에 누군가 소매를 펴서 땅이 오염되어 있었다고 한다. 기이한 이야기로도 들릴 수 있으나, 김경수씨의 당제에 대한 믿음이다.

둔병 마을의 수호신이요, 파수꾼인 김경수씨의 정성으로 연륙 이후 밀려들어 올 온갖 나쁜고 해로운 것으로부터 마을이 지켜지길 기대한다.



당집



당집 내에 걸려있는 당집건립 후원자 명단

## 4. 둔병도의 민속문화

### 가. 둔병도의 지명유래

둔병도는 마을 앞 작은섬과의 사이 갯벌에 썰물이 되면 생기는 둑병이 있어 생겨난 이름이다. 둑병은 그 깊이가 명주실 한 타레가 다 들어가도 끝이 없어 용굴이라 하였다는 전설도 전해온다. 둔병도(屯兵島)는 이름의 한자 뜻처럼 임진왜란 당시 전라좌수영 산하 수군이 고흥방면으로 이동하면서 임시 주둔하고 있던 곳이라 하여 둔병(屯兵)섬이라고 불렀다는 이야기가 전해오지만, 충무공의 난중일기에는 여수와 고흥 사이를 지나는 시기에 둔병도에 진을 친 기록은 나타나지 않는다.

둔병도의 섬이름 표기는 1896년 돌산군 설립 이전까지의 기록은 둑병의 한자 표기인 둑방도(豆音方島, 斗音方島)로 표기되고 있고 돌산군 설립 이후에 둔병도로 표기하였다.



둔병도의 유래를 만든 썰물이면 생기는 둑병



둔병도 지명지도

- 작은섬개<개> : 둔병마을회관 앞쪽에 작은섬이 있는데 작은섬 안쪽으로 움푹 들어간 갯벌이다.
- 당산너머개<개> : 둔병마을회관에서 북쪽 약 400m 지점에 당산을 넘어가면 있는 갯벌이다.
- 재넘개<개> : 둔병마을회관에서 동쪽 약 1.7km 지점에 있으며, 고개를 넘어가면 있는 갯벌이다.
- 등나무개<개> : 둔병마을회관에서 북동쪽으로 약 1.5km 지점에 있는 갯벌로 등을 넘어서 개가 있다.
- 집앞촌전<개> : 둔병마을 앞바다를 부르는 말로 간조시에는 갯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 마을집 앞에 근접해 있어 집앞촌이라 부른다.



작은섬개



별가



할치골

- 빨가(빨개, 먼데개창)〈개〉 : 둔병마을회관에서 동북쪽 약 1.1km 지점에 위치한 멀리 떨어진 깎개로 바지락 등이 많이 난다.
- 할치골〈해안〉 : 둔병마을회관에서 동남쪽 650m 지점에 해안으로 돌출된 곳
- 큰골〈골〉 : 둔병마을회관에서 동쪽 약 800m 지점에 위치하는 산과 산 사이에 큰 골이다.
- 등나무골짜〈골〉 : 둔병마을회관에서 동쪽 약 900m 지점에 있는 골짜기로 옛날에 등나무가 많이 있었다고 한다.
- 머더들〈들〉 : 둔병마을회관에서 동남쪽 약 500m 지점에 위치한 들로 마을에서 멀리 있는 들이다.
- 논론〈들〉 : 둔병마을회관에서 북서쪽 약 300m 지점에 있으며 논이 많은 들이다.
- 당산나무〈나무〉 : 당집에 있는 나무이다.
- 수리봉〈산〉 : 둔병마을회관 북동쪽 약 850m 지점에 있는 산으로 형세가 독수리처럼 생겼다고 한다.
- 둔병산〈산〉 : 둔병마을 동쪽 위치한 산으로 섬에서 가장 높은 산이며, 임진왜란 당시 요망이 있었다.



당산나무



당산

- 당산<당> : 둔병마을회관에서 북쪽으로 약 200m 지점에 위치하며, 마을의 무사안녕을 기원하며 제사를 모신 제당이다.
- 새양치목<목> : 둔병마을회관 북쪽 약 600m 지점에 있는 목으로 새양치(송아리 방언) 목과 같이 생겼다고 하며, 독도와 연결된 육계사주이다.
- 치도<취도><섬> : 둔병마을회관에서 북쪽으로 약 1.2km 지점에 있는 섬으로 수리가 날아가는 모양같이 생겼다고 하여 ‘수리 치(鷄)’자를 써서 치도라 하며, 취도라고 부르기도 한다.



독도와 새양치목



솔개섬 (치도)

- 독도(새양치섬)<섬> : 둔병마을회관 북쪽 약 700m 지점에 있는 섬으로 새양치(송아지)를 닮았다 하여 송아지 독(犢)자를 써서 독도라고 부른다. 간조시 둔병도와 연결된다.
- 홍창도(홍도, 할미섬)<섬> : 둔병마을회관 동쪽 약 1.8km 지점에 있는 섬으로 옛날에 홍학이 노래를 부르면서 신선들과 놀았다는 전설이 있다. 마을사람들은 할미섬이라고도 부른다.



상과도



하과도

- 상과도(윗섬)〈섬〉 : 둔병마을회관에서 서쪽 약 600m 지점에 있는 2개의 섬 중에 위쪽에 있는 섬으로 외(오이)를 닦았다고 한다.
- 하과도(아랫섬)〈섬〉 : 둔병마을회관에서 서쪽 약 700m 지점에 있는 2개의 섬 중에 아래쪽에 있는 섬으로 참외를 닦았다고 한다.
- 목섬(미섬)〈섬〉 : 둔병마을회관에서 동북쪽 1.3km 지점에 있는 섬으로 만조시에만 섬이 된다. 빨가(개)와 인접해 있다. 주민들은 평상시 본섬과 목이 생겨 목섬이라고 한다.
- 납테기 (등대여)〈여〉 : 하과도 남방등포가 있어 등대여라 부르며, 주민들은 납테기라고 한다.
- 오진여 : 외섬 동쪽의 작은 여로 해산물이 많아 ‘오지다’ 하여 오진여라고 한다.



목섬



오진여

## 나. 둔병도의 설화와 민요

### 1) 홍학 전설

둔병도에서 동쪽으로 250m 지점에 홍창도, 홍도 또는 할미섬이라 부르는 섬이 있는데 이 섬에는 옛날에 홍학이 노래를 부르면서 신선들과 놀았다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다.

### 2) 민요

낭도를 비롯한 인근의 섬들과 비슷하다.



홍도

## 다. 둔병도의 세시풍속

낭도의 세시풍속과 거의 유사하다.

## 라. 둔병도의 신앙

### 1) 당제

둔병마을에서는 음력 정월 대보름 자시에 당제를 모셨으나, 현재는 14일 밤 10시경에 마을 뒷산 중턱에 있는 당집에서 ‘당산제’ 혹은 ‘산신제’를 모시고 있다. 음력 정월 보름 오전 11시경 마을 앞 바닷가에 물이 가득 찰 때 하당제(용왕제, 헌식)를 모신다. 언제부터 당제를 모셨는지 전해오는 문헌이 없어 정확히 알 수 없다.



당집



당집은 마을 뒷산 중턱에 위치하며, 돌담으로 둘러싸여 있고, 돌로 쌓아 곁에 시멘트를 발라 만들었다. 예전에는 상당에 당집 대신 석단을 쌓아두고 제를 지냈다가 이후 목조 기와 집을 지었는데 오래되어 무너지자, 1976년에 슬라브 형태로 당집을 짓게 되었다고 한다.

당집은 방 한 칸과 부엌 한 칸으로 이루어져 있다. 방의 벽에는 감실이 있고, 감실 안에는 천이 두벌 들어있는데 당산할아버지와 당산할머니를 상징한다고 한다. 감실 아래에는 선반이 만들어져 있다. 부엌에는 아궁이가 있어서 당산제를 지낼 제물을 그곳에서 직접 만들고, 제기와 물장군이 있다. 물장군은 제수를 마련하는 데 사용되는 물과 제주로 선정된 집에서 사용할 물을 길러오는데 사용된다. 제주가 사용할 물과 제수 준비를 위한 물은 반드시 공들인 샘에서 길러오는데 공들인 샘은 마을에서 비교적 멀리 떨어져 있는 산속에 있지만, 예전부터 반드시 그 물을 사용한다고 한다.



감실



당산 부엌

상당의 신격은 당산할아버지와 당산할머니이고, 하당은 마을 앞 바닷가이며, 신격은 용왕이다.

음력 1월 5일 아침에 마을사람들이 마을에서 당집으로 가는 길과 공들인 샘으로 가는 길, 당집과 공들인 샘 주변을 깨끗이 청소한 후에 전체 마을사람들이 모여 제주를 선출한다. 제주가 될 사람은 한 해 동안 집안에 상을 당했다든지 출산이 없어야 함은 물론 이혼이나 부정 한 일이 없고, 생기복덕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1970년대 이전에는 제주를 두 사람 선출했지만 1980년대 들어오면서 한사람만 선출하고 대신 제주의 부인까지 함께 하도록 허락하고 있다. 지금은 제주를 나이순대로 선출하고 있으며, 만약 그해에 선정될 사람에게 유고가 있으면 다른 사람과 바꿀 수 있다고 한다. 예전에는 제주에게 수고비를 주지 않고 깨끗한 옷 한 벌 해주는 정도였지만, 점차 노령화되면서 제주 맡는 것을 꺼려해 수고비를 주고 있다고 한다. 대부분 이장이 제주를 맞는다고 한다.

제주로 선정되면 제주는 모든 옷을 다시 깨끗하게 빨아 놓는다. 또한, 1년 동안 상가를 가지 않는데 마을 사람들은 서운하게 생각하지 않으며 당연하게 생각한다. 또 자신의 집 제사 음식은 먹어도 다른 집의 제사 음식은 먹지 않는다. 결혼식에도 참석은 하지만 음식은 먹지 않는다. 만약 음력 1월 10일부터 당산제를 지내기 전인 14일 사이에 초상이 나면 그 사람은 동네에서 상을 치루지 못하고 다른 섬에 잠시 피신해 있다가 당산제가 끝난 후에 초상을 치렀다고 한다.

예전에는 제주가 음력 1월 10일경에 여수 시장에 나가서 제물을 사왔는데, 장을 보러가기 전에 공들인 샘에서 물을 길러와 그 물로 목욕을 하고 장을 보러 갔지만 요즘은 이장과 부녀회장이 제물을 사러 나간다고 한다. 명태와 꽃감, 은행, 대추, 밤 같은 과실과 몇가지 산채 등이다. 제사 비용은 마을에서 균등히 각출한다.

장을 봐온 다음부터는 더욱 엄격하게 금기를 지키는데 제를 지낼 때까지 부부 생활을 하지 않고, 대변을 보면 목욕을 하고, 소변을 보면 세수하고 양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소식을 한다. 4일 동안 밥 조금하고 멸치하고만 먹기 때문에 얼굴이 창백해진다고 한다.

장을 봐온 다음날인 음력 1월 11일에 당집, 제주집, 공들인 샘에 금줄을 치고 황토를 놓는다. 금줄은 반드시 왼새끼를 꼬고, 사이사이에 창호지를 끼운다.

음력 1월 14일 낮 12시경에 제주는 당집으로 올라간다. 이때 이장은 방송을 해서 '제주가 제물을 들고 당집으로 올라가니 밖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은 다 들어가십시오'라고 방송을 한다. 제주가 제물을 들고 당집으로 올라가다가 더러운 것이 있으면 집으로 돌아와 음식을 새로 장만해서 올라간다.

제주는 당집에 올라가면 아무것도 먹지 않고 바로 제물을 장만한다. 마을에서 음식 냄새가 나기 전에 준비를 하기 위한 것이다. 제물은 다 공들인 샘물로 준비한다. 특히 신경 쓰는 것은 지편(제편)이라고 해서 복개를 이용해서 만드는 동그란 모양의 떡이다. 쌀가루를 반죽해서 복개 모양에 맞추어 편다. 그것을 끓는 물에 넣으면 복개와 반죽이 분리되면서 동그란 모양의 떡이 되는데 옛날부터 당산제에 그 떡을 올렸다고 한다.

밤 10시경이 되면 제주 부인이 당집으로 올라간다. 부인이 올라와도 큰 소리로 이야기를 주고받지 않고 눈빛으로 의사소통을 할 정도로 주의를 한다. 제주 내외는 흰 장갑을 끼고 흰 고무신을 신는다. 제주는 천이 들어있는 감심 문을 열고 감실 아래 선반에 촛불을 켜고 제물을 진설한다. 제물로는 메 두 그릇, 제편, 대추, 꽃감, 밤, 사과, 배, 감, 마른 명태 등이다.

제주는 술을 올리고 삼재배를 한 다음 무릎을 꿇고 앉는다. 축문은 읽지 않고 밤 11시경에 흰 종이를 소지하며 마음속으로 구송을 한다. 소지가 끝나면 당집 밖에 있는 헌식 터에



금줄

매식을 한다. 흰 종이에 밥만 싸서 묻는다. 지난해에 묻은 밥이 남았으면 쓸어버리고 새 밥을 묻는다. 매식 후에 다시 당집으로 들어와 철상을 한다. 그런 다음 감실문을 닫고 마을로 내려 오게 되는데 보통 이때가 자정쯤이다.

다음날 오전 10시 정도가 되면 하당에 물이 들어온다. 하당 주변에 대나무를 세우고 금줄을 친다. 하당 앞에 큰 상을 차려놓고 제물을 차린다. 당집에는 제주 내외만 올 수 있지만 하당제를 지낼 때에는 마을주민들이 모두 참여한다. 하당제에 올리는 음식도 걸게 장만한다. 육고기, 생선 등 고기도 올리고, 국도 올린다. 제주가 술을 따르고 절을 하면 매구를 치는 사람들도 같이 절을 한다. 매구를 치는 사람들은 10명 이하이며, 악기 구성은 징, 팽과리, 소고, 장구, 북 등이다. 각 상에서 조금씩 떼어낸 음식을 참종이에 싸서 그 위에 술을 붓고 땅에 묻은 후에 재배한다. 각 가정의 주부들은 자기상에서 제물을 조금씩 떼어서 바다에 던지면서 가정의 소원을 빈다.

이렇게 용왕굿이 끝나면 가져온 음식을 온 마을사람들이 나누어 먹고 함께 노는데 매구를 주로 친다. 매구를 치는 사람들은 고깔을 쓰고, 띠를 두른다. 제주가 흰 종이를 소지하고 난 후 정해진 장소에 밥을 묻으며 헌식을 한다. 매식이 끝나면 제주 집과 이장 집에 가서 매구를 쳐주고 바닷가 다리 있는 곳에서 판굿을 치면 모든 절차가 끝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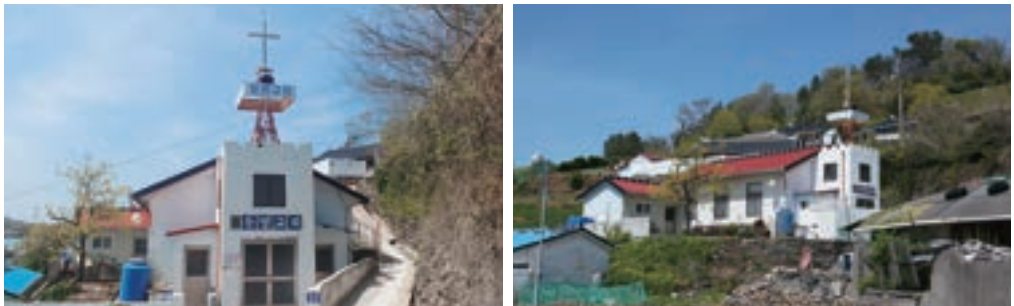
예전에는 당제가 끝나면 집집마다 마당밧기를 했었다. 그러나 지금은 제주 집과 이장 집, 그 외에 원하는 집만 간단히 쳐주고 바닷가 다리 있는 곳에서 판긧을 치고 모든 과정을 마무리한다. 판긧이 끝나면 회관으로 돌아와 음식을 먹으며 결산을 한다.

둔병도는 마을의 노령화와 인구감소로 등으로 인해 매구도 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당제에 대한 주민들의 전승의지는 매우 높다.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섬마을에 거주하면서 고기잡이를 주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이기에 당산제와 하당제(용왕제)를 통해 자신들의 안전과 풍어를 기원하는 것이다. 제사를 지내는 제주는 여전히 금기를 지키고 있다. 당산제 제물을 준비할 때 산속의 공들인 샘의 물을 길어 와서 그 물을 사용하는 점이나 당집에서 직접 제물을 장만하는 점, 제편의 전통을 고수하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둔병도에서는 바다에서 일하다가 죽은 사람이 없고, 전쟁에서 죽은 사람도 없는데 이는 당산제를 잘 모셔서 당산할아버지가 잘 돌보아 주시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 2) 둔병도의 교회

둔병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여수노회 소속으로 1989년에 낭도의 여산교회가 후원하여 설립했다. 2020년 현재 노장호 목사가 시무 중이다.



둔병교회